호매칼럼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수국꽃 향기가 감도는 호수공원에 마실 나갔다. 아이리스꽃이 다양한 색으로 피어 있어 꽃 관찰하며 공원을 걷는 것도 흥미롭다.

작년에 공원화단을 한번 뒤집더니 낯선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 식물이름 찾아보는 것도 산책의 묘미다. 수국밭에도 다양한 수국꽃이 피어 길을 멈추게 한다. 떡갈나무 수국은 잎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 떡갈나무의 모습을 닮았다. 하천 옆으로는 아이리스가 가득 피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이리스는 무지개란 뜻이다.

아이리스는 그리스 신화 속 나비의 여신 이리스(Iris)에서 나온 이름으로 신화 속 신들의 심부름꾼인 이리스는 나비를 통해 하늘과 지상을 오가는 신의 전령 무지개 ‘나비 여신’이라고 한다.

창포, 붓꽃, 아이리스는 같은 종의 꽃이다. 6월의 햇살이 펼쳐지는 곳에 갖가지의 모습으로 피어 있는 아이리스 꽃을 보면 붓을 들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화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농가월령가를 보면 계절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월령가는 음력이다. ‘오월, 오일 단오날에 빛깔이 산뜻하다. 오이밭에 첫 물 따니 이슬이 젖었으며 앵두 익어 붉은빛이 아침볕에 눈부시다. 목 맺힌 영계 소리 연습 삼아 자주 운다. 시골 아녀자들아, 그네는 뛴다 해도 청홍 치마 창포비녀 좋은 시절 허송 마라. 노는 틈틈이 할 일이 약쑥이나 베어두소’ 며칠 있으면 단오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4대 명절로 농경문화에서는 다양한 놀이 문화가 있었다.

단오에는 앵두, 보리수가 익어가고, 창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다 하여 아녀자들은 머리를 감았다. 창포를 물에 삶고 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단백질 성분이 풍부해서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어 머릿결도 좋다.

향긋한 창포의 내음도 좋지만, 귀신을 쫓는다는 설도 있다. 창포는 술을 담그기도 하며 뿌리는 약을 만들고 잎과 줄기는 향료를 만든다. 그렇다면 창포꽃은 줄기에 향기는 남겨 주고 꽃잎을 떨구며 이별을 한다.

최근 블랙핑크 지수의 ‘꽃’ 노래를 들어보면,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부분이 각인 된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전래 동요 ‘우리 집에 왜 왔니’의 노랫말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지수의 꽃 노래는 다른 부분에 대한 기억은 없다. 그런데 어릴 적 들었던 전래 동요 부분은 계속 반복하게 된다. 지수 노래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춤과 함께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어 노래의 인기를 새삼 발견한다. 지수의 꽃 노래를 단오가 다가오니 창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

창포는 꽃잎은 지고 줄기와 잎에 향기를 남기고 떠났다는 생각을 해 본다. 줄기와 잎에 남겨진 꽃향기로 머리를 감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만들었던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되어 각 지자체는 단오 행사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역 주민과 함께한다. 기사를 보면서 삶은 밈(문화 복제)으로 계속 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창포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농경문화를 가졌던 우리 민족은 연못을 많이 만들어 물을 저장해 놨다.

5월이면 연못에 피어 있는 꽃이 붓꽃, 창포다. 붓꽃과 창포를 쉽게 구분하려면 창포는 물가에 많이 피어 있고, 붓꽃은 정원, 화단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꽃 피는 시기를 보면, 붓꽃이 먼저 피고 창포가 좀 늦게 핀다. 붓꽃과 창포의 가장 쉬운 구별법은 창포는 역삼각형 무늬가 있고 붓꽃은 무늬가 없다. 어쨌거나 어렵다.

필자가 사는 마을 호수공원에 창포가 많이 피어 있다. 산책길에 창포꽃을 보면서 대화를 하였다.

창포꽃에 나비 한 마리 날아든다.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다 꽃이 된 아이리스는 햇살 고운 날 꽃이 되어 임을 기다린다. 나비는 창포가 나비인 줄 알고 지나쳐 버린다. 임을 보고 싶어 나비 꽃이 된 창포는 줄기와 잎에 향기만 남고 꽃잎을 떨구어 사람의 머리카락에 향기를 남긴다.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지수의 노래처럼 단오는 창포로 머리 감는 이야기는 남아 있다.

단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창포를 구할 수 없더라도 창포 삼푸라도 구해서 머리를 감아 볼까 한다. 점점 사라져 가는 단오명절이지만 창포로 머리 감는 놀이 문화는 우리의 삶에 남아 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폭염 대비 안전한 여름 보내기

주 영
/장흥소방서 소방행정팀장

기상청은 올해부터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진다고 발표했다.

단순 기온만이 아닌 습도 등을 반영한 ‘찜통더위’ 여부에 따라 폭염을 판단하는 것이다.

폭염이 계속되면 온열질환 등 폭염 관련 질환이 일어나고 심각할 경우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일사병이 대표적이며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상태악화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온열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안전 안내 문자 및 기상청 특보를 예의주시하고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대처요령으로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은 체내수분 유지와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양산, 모자 등을 착용하여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체온을 낮춰야 한다.

야외활동 중에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비해 장흥소방서 119구급차에는 아이스 팩, 아이스조끼, 식염포도당 등 폭염대비 구급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출동대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매뉴얼 교육도 실시해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혹시 주위에서 온열환자를 목격한다면 곧장 시원한 장소로 옮겨 열을 식히고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길 바란다.

119대원들은 폭염을 포함한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주유소서 태우는 담배, 절대 근절해야

박 철 우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 속담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과 잘 들어 맞는 말이며, 이를 ‘안전불감증’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위험상황을 빨리 인지하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줄일 수 있었던 사고들이며 즉, 인재(人災),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주유를 하던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는 일이 있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며, 그 유증기가 담뱃불 등 작은 불씨와 맞닿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였다.

주유소 화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여러 화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유소 내 흡연이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단순히 흡연자 한 사람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유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주유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현재 주유취급소 내 흡연한 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며, 해당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6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항상 해 오던 일, 행동이 익숙하다보니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다가 발생하지 않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을 크게 키우는 경우가 반복됐었다.

담배를 피우는 것 까지는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 처벌기준을 알고, 적어도 주유취급소, 금연구역에서는 잠시만 참고 안전한 장소,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게 지킴으로써 위험에 무감각한 대한민국이 아닌, 안전에 예민한, 안전이 당연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본다.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장실	(062) 363-0027	편집국장	(062) 363-8800
광고국	(062) 363-0005	정·경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회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체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TEL : (062) 363-8800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